

음악과 집중이수제의 실시와 폐지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현 경 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과목을 중심으로 집중이수제 실시와 폐지에 따른 각 학교의 운영 실태와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다.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중등 교사 172명과 집중이수제를 경험한 학생 1522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교사 27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집중이수제를 반대하고 있었으며, 집중이수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수급과 학생 음악학습의 단절, 그리고 전학생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집중이수제의 실시로 교사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였으며 그 효과도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넷째, 학생들도 집중이수제의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 주제어: 집중이수제, 2012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사들의 인식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 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1. 음악교사 설문지
2. 학생설문지
3. 교사 인터뷰

IV. 결론 및 논의

* 이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연구과제 번호 2011-2-11-081)

** 성신여자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으며,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한명은 ‘적어도 한번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2010년 조사 때보다 응답비율이 3.4%포인트나 증가한 결과다¹⁾.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13-19세의 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진학문제(39.2%)’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²⁾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와 학생의 선택을 넓혀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학년군, 교과군 개념을 도입하여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과(군)별로 수업시수 20%를 학교 자율에 맡겨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 교과로 운영하여 학생들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학년군’이란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한 개의 군으로 묶어 교과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교과를 정해진 학년에서 정해진 시수만큼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있었으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학년군에서 융통성 있게 교과와 수업시수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중학교로 예를 들면, 과거의 교육과정은 음악을 1학년에 주당 2시간, 2학년에 주당 1시간, 3학년에 주당 1시간을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1-3학년이 한 학년군으로 묶여지면서 중학교 음악 총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929.html 조선일보.

2)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502000301> 아주경제.

주당 4시간을 1, 2, 3학년 중 어느 학년에서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과군’이란 개별로 되어 있던 교과를 유사한 것끼리 교과군으로 묶어 편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경우 기존 10개 국민공통 기본 교과 중 사회, 도덕,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의 6개 교과는 사회/도덕, 과학/기술·가정, 예술(음악/미술)의 3개 교과군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는 같은 교과군의 과목 중 하나를 골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나 도덕 중 한 과목만을, 음악이나 미술 중 한 과목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 공통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을 제외하면 10개의 기본 과목(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등의 경우 한 학기에 8과목만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8과목만 개설하려면 2과목은 줄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년군과 교과군을 만들어 특정 과목을 집중으로 이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에는 권장 사항, 중·고등학교에는 강제 사항이다. 이렇게 특정과목을 집중으로 이수하게 만든 제도를 ‘집중이수제’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집중이수제의 목적을 “학습 부담의 경감”(교육과학기술부, 2009a, 5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집중이수제는 2011년부터 각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광하(2010), 김재춘과 최필순(2012), 김진숙과 이미숙(2012), 박정은(2011), 이근호 외(2010), 이은정(2012), 정미경(2011), 조난심(2010),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10), 홍후조(2011)등이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학교마다 다른 교과과정의 편성으로 전학생들의 교육 공백의 문제, 교사의 시수 불균형의 문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에 대한 교과별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김영석, 2010), 도덕(김태훈, 2010; 조석환, 이언주, 2010), 음악(김지혜, 2011, 민경훈, 2009, 이사야, 2012, 채로이아, 2010), 미술(심상보, 2010), 실과(이춘식, 2010, 전세경, 2010), 기술(최유현 외, 2011), 가정

(조재순 외, 2011) 등이 각 교과와 집중이수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교사의 인식 등을 연구하였다. 이들도 각 교과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단절과 교사의 시수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또 다른 중점 개정요인은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 확대이다. 교과(군)별로 수업시수 20%를 학교 자율에 맡겨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첫해인 2011년 중학교 1학년의 수업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중학교 10곳 중 7곳이 영어 수업시간을 예전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도 60% 이상이 국어와 수학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나타났다³⁾.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 결과 학생들의 주요과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들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다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존 수업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교과목수 8개 이내 편성에서 체육과 예술을 예외사항으로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실상 2년여 만에 각 학교에서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중이수제는 2011년부터 각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년에 적용되기도 전에 사실상 폐지한 꼴이 되었다. 또, 수업 20%내의 자율성 부여가 예체능 과목의 축소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기존 수업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집중이수제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집중이수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음악과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음악교사들은 집중이수제의 실시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5/e2011051317192193820.htm> 서울경제.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했을 때의 수업내용과 이에 대한 장, 단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과목을 중심으로 집중이수제 실시와 폐지에 따른 각 학교의 운영 실태 및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주어진 시수 안에서 음악과목이 미래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미래의 교육과정 개선방향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집중이수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집중이수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셋째, 집중이수제와 관련한 음악과목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원래 2011년부터 기획된 연구이다. 연구도중 2012년 12월 13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사실상 집중이수제가 폐지되었다. 교사 설문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전에 수거된 것이고, 교사 인터뷰는 그 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인터뷰의 결과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실시와 폐지에 따라 교사의 인식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설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5개 학교만이 참여했으므로 전국에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집중이수제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중등 교사 172명과 집중이수제를 경험한 학생 1522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교사 27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총 인원은 1722명이다<표 1>.

음악 교사 설문은 전자 우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수거되었다. 먼저 교사들의 유명 카페인 전남 중등음악사랑연구회 홈페이지 운영자의 도움으로 회원 1,260명에게 전자 우편이 보내졌으며, 이 중 105명이 설문을 답해왔다(회수율 8.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페 운영자가 설문을 받아 연구자에게로 보내어 주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음악 교사 합창단을 직접 방문해 설문 25매를 수거하였다. 그 외 설문을 답한 음악교사 43명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직접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총 172명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생은 수도권 15개교의 학생 152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교사인터뷰는 설문을 통해 지원을 받아 교사 27명에게 실시되었다.

<표 1> 연구대상

성별	남	여	계((%)
교사(설문)	41(23.7)	132(76.3)	173(100)
교사(인터뷰)	4(14.8)	23(85.2)	27(100)
학생(설문)	508(33.4)	1014(66.6)	1522(100)
총계	553(32.1)	1169(67.9)	1722(100)

2. 연구도구

이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와 인터뷰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모든 설문지와 인터뷰지는 박정은(2011)의 논문, 김지혜(2011)의 논문, 그리고 이은정(2012)의 논문에 쓰인 설문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다. 설문은 음악 교사와 학생의 것이 따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음악 교사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접문항이 개발되었다. 교사설문지는 총 5영역의 48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개발되었다. 학생설문지는 일반적인 사항과 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으로 나누어 총 14문항이 만들어졌다. 인터뷰의 질문지도 미리 만들어졌다. 인터뷰 문항은 설문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을 중심으로 설문의 내용보다 심화된 질문으로 만들어졌다. <표 2>는 교사 설문지의 영역별 내용이다. 학생설문지는 일반적인 사항 5 문항과 집중이수제에 대한 인식을 일반과목과 음악과목의 영역으로 나누어 9문항, 총 14문항이 개발되었다.

<표 2> 음악교사 설문지 내용

영역	문항수
1. 일반적인 사항	7
2. 일반 교과과정에 대한 인식	7
3. 각 학교의 교과별 수업시수 20%증감의 자율권을 부여에 대한 인식	8
4. 학생부담 경감에 대한 인식	4
5. 음악과 집중이수제의 장·단점에 관한 인식	22
계	48

3. 연구절차 및 방법

이 연구는 2011년 12월부터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집중이수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 ②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교사 설문지, 학생 설문지, 교사인터뷰지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 ③ 설문지 조사를 위해 2012년 10월 교사들의 유명 카페인 전남 중등 음악 사랑 연구회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연구자에 의해 보내졌다.
- ④ 카페의 운영자에 의해 설문지가 카페 회원들에게 보내졌다.
- ⑤ 카페 운영자는 교사들로부터 설문지를 모아 연구자에게 보내었다.
- ⑥ 그 외 설문지는 연구자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교사 설문지와 학생 설문지를 부탁하였다.
- ⑦ 2013년 2월까지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설문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해 분석되었다.
- ⑧ 수거된 교사 설문지 중 인터뷰를 지원한 교사들의 명단이 만들어졌다.
- ⑨ 2013년 3월 20일부터 인터뷰를 지원한 교사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전화하여 인터뷰 스케줄을 개인적으로 잡아 인터뷰를 준비를 하였다.
- ⑩ 인터뷰는 집중이수제 폐지 이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 4월 연구자가 전화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인터뷰과정은 녹음되었다.
- ⑪ 인터뷰를 지원한 교사 43명이 스케줄에 따라 차례대로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더 이상 새로운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터뷰의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27명에서 인터뷰는 중단되었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and Strauss, 1967)가 제안한 ‘포화’ 이론을 적용시킨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데 질적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⑫ 인터뷰자료는 모두 전사되었으며, 전사된 인터뷰자료는 분석방법에 따라 코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음악교사 설문지

설문대상 음악교사는 총 173명중 남자가 41명, 여자가 132명이었으며,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사가 가장 많아 76명, 석사이상 소지자가 94명, 대도시의 교사가 101명, 그리고 국·공립의 교사가 133명이었다.

<표 3> 설문 대상 음악 교사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			여		계(%)	
	41(23.7)			132(76.3)		173(100)	
경력	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계(%)		
	35(20.2)	32(18.5)	30(17.3)	76(43.9)	173(100)		
최종 학력	학사		석사이상	기타		계(%)	
	79(45.7)		94(54.3)	0(0)		173(100)	
전공	음악교육	국악	성악	기악	작곡·기타	계(%)	
	99(57.2)	4(2.3)	33(19.1)	22(12.7)	15(8.7)	173(100)	
소재 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지역	무응답	계(%)	
	101(58.4)	42(24.3)	27(15.6)	1(0.6)	2(1.2)	173(100)	
학교 크기	10개학급 미만	10개- 16개미만	16개- 27개미만	27개 이상	무응답	계(%)	
	31(17.9)	29(16.8)	50(28.9)	62(35.8)	1(0.6)	173(100)	
유형	국·공립		사립	기타 특수학교		무응답	계(%)
	133(76.9)		34(19.7)	5(2.9)		1(0.6)	173(100)

일반교과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음악교사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73.4%).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90.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공교육의 정상화나 사교육의 감소(79.8%)에도 별로 도움을 주고 있다

고 생각지 않으며, 교과군의 편성(60.1%)이나 집중이수제(76.9%)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82%의 교사가 전학생의 특정과목의 학습결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다<표 4>.

<표 4> 일반교과과정에 대한 설문(교사)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2 (24.3)	85 (49.1)	37 (21.4)	7 (4.0)	2 (1.2)	0 (0)	173 (100)
2. 주당 수업시간이 적은 과목은 집중이수제를 실시하여 특정 학년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다.	7 (4.0)	18 (10.4)	15 (8.7)	45 (26.0)	88 (50.9)	0 (0)	173 (100)
3. 과학/기술·가정, 사회/도덕, 음악/미술로 된 교과군 편성은 잘된 것이다.	11 (6.4)	26 (15.0)	32 (18.5)	41 (23.7)	63 (36.4)	0 (0)	173 (100)
4.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1 (0.6)	5 (2.9)	27 (15.6)	52 (30.1)	85 (49.7)	2 (1.2)	173 (100)
5.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실시로 전입생의 같은 과목 재이수 문제나 특정과목의 학습결손의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107 (61.8)	35 (20.2)	17 (9.8)	4 (2.3)	10 (5.8)	0 (0)	173 (100)
6. 2012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1 (12.1)	56 (32.4)	51 (29.5)	28 (16.2)	15 (8.7)	2 (1.2)	173 (100)
7. 교육과정 개정이 무계획적으로 너무 자주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5 (72.3)	31 (17.9)	7 (4.0)	4 (2.3)	5 (2.9)	1 (0.6)	173 (100)

교과별로 수업시수 20%이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학교에 준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그 효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53.7%), 학생의 진로 흥미 수준에 맞는 교육(53.8%), 공교육의 경쟁력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주요과목의 수업시간이 증가(75.1%)하고 음악과목의 입지는 줄어들 것(70.6%)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78.6%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성발달과 흥미, 개성을

위해서는 비 주요교과의 시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였다<표 5>.

<표 5>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의 자율권에 대한 설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8. 각 학교의 교과별 수업 시수 20%증감의 자율권 을 부여한 것은 잘한 일 이다.	7 (4.0)	51 (29.5)	63 (36.4)	26 (15.0)	26 (15.0)	0 (0)	173 (100)
9. 수업시수 20%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행사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5 (2.9)	32 (18.5)	61 (35.3)	42 (24.3)	33 (19.1)	0 (0)	173 (100)
10. 학교의 자율권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 육이 실행되었다.	5 (2.9)	34 (19.7)	40 (23.1)	58 (33.5)	35 (20.2)	1 (0.6)	173 (100)
11. 학교의 자율권은 학생의 진로 흥미 수준에 부합 된 교육과정의 선택을 누릴 수 있다.	3 (1.7)	26 (15.0)	50 (28.9)	47 (27.2)	46 (26.6)	1 (0.6)	173 (100)
12.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공교육의 경쟁 력은 높아질 것이다.	3 (1.7)	36 (20.8)	52 (30.1)	48 (27.7)	33 (19.1)	1 (0.6)	173 (100)
13. 학생들의 인성발달과 흥 미, 개성을 위해서는 비 주요교과의 시수를 늘려 야 한다.	77 (44.5)	59 (34.1)	29 (16.8)	2 (1.2)	6 (3.5)	0 (0)	173 (100)
14. 교과별 수업시수 20% 자율 증감 정책으로 주 요과목 수업시간이 증가 하였거나 증가할 것이 다.	67 (38.7)	63 (36.4)	29 (16.8)	8 (4.6)	6 (3.5)	0 (0)	173 (100)
15. 자율권 확대에 따른 음 악과목의 입지가 줄어들 었거나 줄어들 것이다.	61 (35.3)	61 (35.3)	30 (17.3)	13 (7.5)	8 (4.6)	0 (0)	173 (100)

집중이수제가 학생 부담을 경감시키느냐 하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동시
이수과목수가 너무 많다는 데는 동의(동의 45.1%, 반대 16.2%)하면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실시로 과목수가 줄어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줄었다는 데는 16.8%만이 동의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육, 예술과목의 비중을 늘리고(74.0%), 주요과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70.5%)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6>.

<표 6> 학생 학습 부담 경감에 대한 설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16. 학생들의 동시 이수과목수가 너무 많다.	26 (15.0)	52 (30.1)	67 (38.7)	22 (12.7)	6 (3.5)	0 (0)	173 (100)
17.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실시로 학기당 이수과목의 축소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경감되었다.	2 (1.2)	27 (15.6)	46 (26.6)	45 (26.0)	52 (30.1)	1 (0.6)	173 (100)
18.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과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57 (32.9)	65 (37.6)	37 (21.4)	10 (5.8)	4 (2.3)	0 (0)	173 (100)
19.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 등 예술과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69 (39.9)	59 (34.1)	35 (20.2)	5 (2.9)	5 (2.9)	0 (0)	173 (100)

음악과 집중이수제의 장점에 관한 설문에서는 실습·실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49.2%), 수행평가의 진행사항을 잘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38.7%), 학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 이해가 쉬웠다(43.3%)는 점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음악의 전문성(66.4%), 수업의 효율성(63.6%), 담당 학년 수 감소에 따른 효과(54.9%)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특히 71.1%의 교사가 집중이수제가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집중이수제로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효과적인 교육이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68.2%). <표 7>.

<표 7> 음악과 집중이수제 장점에 관한 설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20. 음악과의 집중이수제 실시는 발전적이었으며 효과적이었다.	6 (3.5)	16 (9.2)	28 (16.2)	39 (22.5)	84 (48.6)	0 (0)	173 (100)
21. 집중이수제로 음악과목의 전문성은 높아졌다.	9 (5.2)	22 (12.7)	26 (15.0)	448 (27.7)	67 (38.7)	1 (0.6)	173 (100)
22. 집중이수제로 음악과목 수업의 효율성은 높아졌다.	9 (5.2)	27 (15.6)	24 (13.9)	51 (29.5)	59 (34.1)	3 (1.7)	173 (100)
23.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담당 학생수가 줄어들어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	10 (5.8)	24 (13.9)	21 (12.1)	54 (31.2)	64 (37.0)	0 (0)	173 (100)
24.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맡은 학년수가 줄어 효과적이었다.	12 (6.9)	24 (13.9)	42 (24.3)	44 (25.4)	51 (29.5)	0 (0)	173 (100)
25.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수업을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 (11.6)	50 (28.9)	34 (19.7)	32 (18.5)	37 (21.4)	0(0)	173 (100)
26. 집중이수제로 실습 시기 수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25 (14.5)	60 (34.7)	41 (23.7)	21 (12.1)	26 (15.0)	0 (0)	173 (100)
27. 집중이수제로 수행평가를 시작-진행-결과에 걸쳐 점검할 수 있었다.	19 (11.0)	48 (27.7)	56 (32.4)	25 (14.5)	24 (13.9)	1 (0.6)	173 (100)
28. 주당 수업시수가 많아져, 담당 학생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2 (12.7)	53 (30.6)	50 (28.9)	22 (12.7)	26 (15.0)	0 (0)	173 (100)
29. 집중이수제로 음악 교과의 비중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13 (7.5)	11 (6.4)	42 (24.3)	36 (20.8)	71 (41.0)	0 (0)	173 (100)

음악과 집중이수제 실시로 나타나는 단점에 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답을 나타내었다. 음악수업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학생들의 성장에 맞춘 수업의 어려움(74.6%)과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수업 시수로 인한 수업준비의 어려움(56.6%) 등을 토로하고 있었다. 교사 수급에 대해서는 교사들 간의 의견 조율의 어려움(76.3%), 임시교사와 기간제

교사, 강사의 증가(79.7%), 담임반 운영의 어려움(78.6%)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86.1%가 순회교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으며, 각 학교가 다른 시기에 음악을 하게 됨으로서 전학생의 학습 결손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데 85.6%가 동의하고 있었고, 86.2%가 전입생의 보충학습은 업무에 부담이라고 답하였다. 또 집중이수제로 같은 학년을 1, 2학기에 나누어 가르치게 됨으로서 같은 평가가 어렵다고 83.3%가 대답하였고, 82.1%는 음악을 배우는 학기에만 몰아서 배우게 되므로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학기에 대한 음악학습의 단절을 염려하고 있었다. 79.9%의 교사가 집중이수제의 폐지에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교사는 6.4%이었다<표 8>.

<표 8> 음악과 집중이수제 단점에 관한 설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30. 음악은 한 두 시간이라도 매 학년 꾸준히 배워야 효과적인데 집중이수제로 그 효과가 줄어들었다.	116 (67.1)	26 (15.0)	17 (9.8)	9 (5.2)	5 (2.9)	0 (0)	173 (100)
31. 집중이수제로 학생들의 감정과 성장과정에 맞춘 수업이 쉽지 않다.	77 (44.5)	52 (30.1)	28 (16.2)	10 (5.8)	6 (3.5)	0 (0)	173 (100)
32. 학기별로 집중이수제를 할 때 담임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97 (56.1)	39 (22.5)	28 (16.2)	6 (3.5)	1 (0.6)	2 (1.2)	173 (100)
33. 한 학년에서 학기가 다르게 실시될 경우 동일 문항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88 (50.9)	56 (32.4)	23 (13.3)	3 (1.7)	3 (1.7)	0 (0)	173 (100)
34. 전입학생이 음악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 '보충학습 과정'등을 실시하여도 학습 결손은 피할 수 없다.	105 (60.7)	43 (24.9)	18 (10.4)	2 (1.2)	5 (2.9)	0 (0)	173 (100)

35. 전입학생의 보충학습과정은 업무에 부담이다.	93 (53.8)	56 (32.4)	17 (9.8)	4 (2.3)	2 (1.2)	1 (0.6)	173 (100)
36. 집중이수제로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나 수업준비가 더 어려워졌다.	39 (22.5)	59 (34.1)	48 (27.7)	15 (8.7)	11 (6.4)	1 (0.6)	173 (100)
37. 집중이수제로 교사의 수업시수 배분에 불만이 늘었다.	67 (38.7)	65 (37.6)	32 (18.5)	6 (3.5)	3 (1.7)	0 (0)	173 (100)
38. 집중이수제로 수업의 시수 증감폭이 커져 많은 순회교사가 양산된다.	103 (59.5)	46 (26.6)	21 (12.1)	1 (0.6)	1 (0.6)	1 (0.6)	173 (100)
39. 집중이수제로 기간제 교사, 강사 등 임시교사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81 (46.8)	57 (32.9)	24 (13.9)	5 (2.9)	5 (2.9)	1 (0.6)	173 (100)
40. 내년부터 음악과목의 집중이수제가 폐지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112 (64.7)	26 (15.0)	24 (13.9)	6 (3.5)	5 (2.9)	0 (0)	173 (100)

2. 학생 설문지

참가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총 1522명 중 남자가 508명 여자가 1014명이었으며, 중학생이 1107명 고등학생이 415명이었다. 대도시의 학생들이 1123명이었으며, 음악을 한주에 4시간 하고 있는 학생들이 987명이었다<표 9>.

<표 9> 설문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	여	계(%)
	508(33.38)	1014(66.62)	1522(100)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107	415	1522

학교 유형	국·공립		사립		기타	계(%)
	1458(95.80)		64(4.20)		0(0)	1522(100)
학교 소재 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지역	계(%)	
	1123(73.78)	399(26.22)	0(0)	0(0)	1522(100)	
주당 음악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무응답	계(%)
	380 (24.97)	29 (1.91)	987 (64.85)	64 (4.20)	62 (4.07)	1522 (100)

집중이수제 실시로 인한 일반과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필수 과목수가 8개로 줄어 공부의 양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7.6%에 불과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4.0%이었다. 학생들은 주요과목의 수업이 너무 많아 학습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60.8%),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 체육의 수업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49.8%)<표 10>.

<표 10> 일반과목에 대한 설문(학생)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상관 없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 답	계(%)
1. 과목수가 8목으로 줄어 공부의 양이 줄었다.	123 (8.1)	297 (19.5)	582 (38.2)	217 (14.3)	301 (19.8)	2 (0.1)	1552 (100)
2. 주요과목의 수업이 너무 많아 학습량이 너무 많다.	340 (22.3)	586 (38.5)	452 (29.7)	87 (5.7)	56 (3.7)	1 (0.1)	1522 (100)
3.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비 주요과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360 (23.7)	397 (26.1)	466 (30.6)	154 (10.1)	144 (9.5)	1 (0.1)	1522 (100)
4. 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을 몰아서 수업하니까 좋은 점이 많다.	153 (10.1)	300 (19.7)	540 (35.5)	305 (20)	217 (14.3)	7 (0.5)	1522 (100)

음악과 집중이수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음악학습의 효과, 호감도, 실기시간의 확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시간은 적더라도 매학기 배워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36.4%)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23.8%)보다 많았다<표 11>.

<표 11> 음악과목에 대한 설문(학생)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상관 없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5. 음악시간을 한주에 여러 시간 하니까 학습이 효 과적이다.	225 (14.8)	386 (25.4)	554 (36.4)	178 (11.7)	135 (8.9)	44 (2.9)	1522 (100)
6. 음악을 자주하다보니 음 악 수업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255 (16.8)	383 (25.2)	524 (34.4)	167 (11)	156 (10.3)	37 (2.4)	1522 (100)
7. 음악 실습 실기 수업 시 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 어 좋다.	226 (14.9)	383 (25.2)	544 (35.7)	189 (12.4)	137 (9.0)	43 (2.8)	1522 (100)
8. 음악시간을 여러 시간 하니까 힘들다.	141 (9.3)	627 (41.5)	617 (40.5)	243 (16)	216 (14.2)	38 (2.5)	1522 (100)
9. 시간수가 적더라도 음악 은 매학기 배워야 한다.	249 (16.4)	305 (20)	366 (24.1)	159 (10.5)	173 (11.4)	3 (0.2)	1522 (100)

3. 교사 인터뷰

교사 설문지를 하면서 인터뷰를 할 교사를 지원 받았다. 총 172명 중
서 43명이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는 27명만을 하였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and Strauss, 1967)가 제안한 ‘포화’ 이론을 적용시켜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데 질적 연
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음악교사가 21
명 고등학교 교사가 6명 참여하였다. 다음은 27명의 음악교사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 올해의 집중이수제 실시 형태

2013년, 올해는 201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이다. 교사 인터
뷰를 통해 집중이수제 실시 형태를 조사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2012년에
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1) 모두 풀거나 2) 일부를
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과 똑같이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학교
는 없었다. 집중이수제를 일부 시행하는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중 2

개 학년을 주당 2시간씩 실시하는 학교가 많았다. 혹은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싶지 않은데 교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점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학교의 경우가 있었다.

- 1) 저희학교는 작년이랑 재작년 2년 동안 집중이수제 실시하고 1주일에 4시간을 했고, 올해부터는 풀어서 2-1-1(1학년 주당 2시간, 2학년 주당 1시간, 3학년 주당 1시간) 이렇게 돌아갔어요. (작년에는) 1주일에 4시간을 해서 다 끝나는 경로 운영했어요. (교사 2)
- 2) 지금 들어오는 1학년부터는 2시간씩 하는 경로. 1학년 2시간, 2학년 2시간, 3학년 때 음악 안 하는 경로..... (교사 4)
올해는 1학년 3시간 2학년이 한시간이구요, 사실은 애들 교육과정상에 문제가 아니고, 교원수급 때문에 자체적으로 풀 거예요. (교사 10)

나. 집중이수제 실시에 따른 장점

교사들은 집중이수제의 장점으로 한주에 집중적으로 여러 시간을 하게 됨으로서 1) 음악시간에 다양한 활동 가능, 2) 악기 배우기 등 적은 시수로 할 수 없었던 활동을 집중적, 연계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음, 3) 학생인원수가 적어져 평가가 용이, 4) 학생들과의 친밀도가 높아짐, 5) 학생들이 주요과목으로 생각하는 것 등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1) 아이들을 매일 보니까 훨씬 뭔가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빠듯하기는 한데 그래도 훨씬 자세하게 할 수 있고. (교사 26)
- 2) 리코더 같은 것 하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못 외우고.... 그런데, 4시간 시키니까 그런 아이들은 줄죠. 아무래도 시험 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완성도 있게 하니까. (교사 2)
- 3) 오히려 평가하기는 집중이수가 쉽죠. 인원수가 적어지니까요. (교사 25)
- 4) 장점은 몇몇 학급을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처럼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교사 16)
- 5) 학생들이 일주일에 4시간을 하니까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교사 4)

다. 집중이수제의 단점

집중이수제의 단점으로는 1) 일주일에 여러 시수를 한꺼번에 하게 되므로 수업준비 업무 과다, 2) 음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 시간을 지겨워 한다는 것, 3) 짧은 시간(한 학기) 안에 여러 가지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 4) 같은 학년을 앞 뒤 반으로 학기를 나누어 가르치게 될 경우 똑 같은 평가가 쉽지 않은 문제. 5) 여러 시간을 배우게 되니 단기간에 학습량이 늘고 수업이 해이해지는 문제, 6) 수업이 없는 학기가 생기므로 수업 단절로 인한 수업의 연계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문제, 7)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업의 어려움, 8) 교사의 시수 문제와 수업 분배의 문제, 9) 담임반 운영의 문제 10) 전입생의 문제 등이라고 음악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 1) 아무래도 일주일에 4시간이니까 계속 수업 준비할 양이, 오늘 하고 나서 내일 할 것도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 준비해야 하고, 아이디어 계속 짜고, 애들한테 학습지 만드는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늦게 되니까. (교사 1)
- 2)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요 과목도 아닌데 계속 해야 하니까, 애들도 힘들어하고. 4시간은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싫어하는 아이들은 너무 지겹잖아요. (교사 15)
- 3) 한 학기 동안 4가지 수행평가를 해야 하니까. 계속 수행평가를 봐야하고, 이론 공부도 좀 해야 하는데. 수행평가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교사 16)
- 4)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상당히 민감해서 만약에 평가 내용을 달리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교사 25)
- 5) 두 배로 몰아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시간 정도는 음악 관련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 시간 정도는 영화를 보던가, 이렇게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사 24)
- 6) 애들이 배울 때는 괜찮은데, 공백이 있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이 잊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는 실습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교사 1)
- 7)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서 단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1학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사 19)

- 8) 1학기 땐 음악 시수가 아예 없어서, 순회 교사도 가서 세 학교를 갔어요. 그 때는 다른 과목 안하고 음악으로만 쪽 하는 걸로만 했는데, 순회교사 없앤다고 해서 순회 교사 안 가고 다른 과목 가르쳤었거든요. (교사 23)
- 9) 담임을 못해요. 한학기만 가르치니까요. (교사 3)
- 10) 안 좋은 점은 전입생 한 명 때문에 시험 문제를 새로 내고, 새로 실기시험 보고, 새로 다시 봐야하고 (교사 22)

라. 집중이수제 음악수업의 운영

집중이수제의 시행 시 수업의 내용, 교과서의 사용 등 음악수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우선 집중이수제 전후에 어떻게 수업의 내용이 변화했는지를 물었다. 즉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해본 수업이라든지 못하고 넘어간 수업들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다. 또 교과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했고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면서 수업이 활동위주가 되고 다양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래 붙여가거나 쿠퍼하고 음악신문 만들기, 뮤지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씩 다 실습 해보고, 여러 가지 수업 같은 것도, 이론 같은 게 그냥 줄글로 하는 게 아니라 퀴즈를 해보고 모둠별 수업도 되게 많이 하고, 음악사 만화 그리기, 음악 감상하면서 미술 작품 하나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게 제한되고요. 한 시간 밖에 안 되니까.... (교사 1).

한줄 메모장 활동을 했어요. 수업 끝나고 한두 줄씩 해가지고, 애들하고 계속해서 편지 식으로 댓글 주고받고 했거든요. 재미도 있고요. 애들하고 수업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분석차원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2학기에는 독서토론 수업을 하면서 스마트교육을 병행했거든요.....책을 읽으면서 책안에 QR 코드가 있어서요, 이 책 부분에서 감상할 곡이 나오면 코드를 찍으면 동영상 재생이 되는 거예요. (교사 3)

(한주에 한 시간 수업을 하면) 기타 코드만 한 시간 배우면 다음 시간에 오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수제가 되니까 진도가 나가 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수업하니까 아이들이 간단한 제재곡 같은 것은 기타 코드 치면서, 음악을 몰라도 코드만 배우면 기타는 할 수 있으니까요.

게이름을 모르는 학생들도. 재밌게 수업을 했죠. (교사 22)

저희는 학급 음악회를 했어요. (교사 19)

음악 사전 만들기를 했었어요. (교과서에서) 음악사전에 만들 만한 이론을 본인
들이 다 골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품을 주면 그 안에다가 음악 이론을 다
적는 거예요. (교사 13)

2011년부터 집중이수제가 실시되었으나 거기에 맞는 교과서는 미처 개발되지 못하였다. 비로소 2013년부터 집중이수제에 맞게 개발된 통합교과서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현장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는 집중이수제를 하면서도 학년별로 분철된 교과서를 사용하였고, 2013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폐지하였음에도 집중이수제에 맞추어 개발된 통합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과서 사용의 혼란이 있으리라 예상되어 1) 집중이수제 실시시의 교과서 사용과 2) 현재 통합교과서에 대한 사실을 교사에게 물었다.

1) 교과서 반, 제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악보라든지 교과서에 없는 이런 것들
프린트 반. 이렇게 수업 진도 나가고 있어요. (교사 25)

사실상 교과서가 3권이어도 거의 1학년 한 권 가지고 거의 1년 썼고, 2,3학년은 한 두권 정도 쓴 것 같아요. 거의 잘 안 썼고 (교사 26)

작년처럼 1학년에 4시수를 모두 한 경우 사실 1, 2, 3학년 교과서를 다 나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집중이수제 안할 때와 똑같이 진도를 나가려니... (교사 20)

2) 통합교과서 사용하기 불편하죠. 다시 분권 났으면 좋겠어요. 집중이수제 풀렸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교과서가 결레가 났어요. 3년을 써야 되니까 깨끗하게 간수해라 했는데도 벌써 남자애들은 너덜너덜해져서, 낙서부터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사 26)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집중이수제 실시와 폐지에 대한 음악수업의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집중이수제를 반대하고 있었으며, 집중이수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중이수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해 오던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두 집중이수제의 실시가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동안 비 주요교과라고 생각하고 있던 교과들을 여러 시수를 한꺼번에 하게 되니 그 학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부담을 학생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시수가 많으니 수업준비에 부담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3년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는 일부 학교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폐지하였다. 2013년 집중이수제에 대해 학교에 자율권을 준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둘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1) 교사 수급과 2) 학생 음악 학습의 단절, 그리고 3) 전학생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 교사수급에 관한 문제는 교사들의 직업 안정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사들이 음악이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근무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집중이수제 실시와 폐지로 많은 순회 교사가 양산되었으며,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뜻하지 않게 전근을 가야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또 기간제 교사나 강사도 많이 늘어났다. 언제 시수가 모자랄지 모르니 정교사 채용을 학교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교사의 수는 줄고 계약직 교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일 뿐 아니라 교사들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2)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음악과목의 수업단절이 일어났다. 수업공백이 많게는 2년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음악은 지식적인 교과가 아니라고 교사들은 생각한다. 음악은 한꺼번에 배워 끝내는 과목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발달을 돕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다. 2년을 쉬고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번 배운 것을 기초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3) 집중이수제의 실시로 전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재이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교마다 음악을 배우는 시기가 다르니 전학생의 수업 결손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수업결손 뿐만 아니라 같은 수업을 또 들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다 높이 학습’, ‘사이버 교실’ 등 ‘보충 이수제’에 대한 대안을 내어 놓았음에도 잘 운영되는 학교는 드물었으며 잘 운영된다하더라도 수업 결손은 피할 수 없었다. 또 교사들 입장에선 수업결손을 줄이기 위한 ‘보충 학습’이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

셋째, 집중이수제의 실시로 교사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였으며 그 효과도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1) 모둠별 학습의 확대, 2) 기타, 드럼 등 악기의 집중적인 학습, 3) 중주, 합주 등의 연주회 확대, 4) 뮤지컬, 음악회의 실시 등 다양하였다.

넷째, 학생들도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과목수가 8개로 줄었는데도 학습 부담이 줄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가 주요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과목수가 많아서라기보다 주요과목에서 학습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비 주요교과의 학습은 늘리고 주요과목의 학습량을 줄여주어야 학생의 학습 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악과목을 중심으로 집중이수제가 어떻게 실시되어야 효과적일지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목을 포함한 기본 교과목의 학년별 시수를 정해 모든 학교가 똑 같이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 수급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음악학습의 단절과 전학생의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담임반 운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교의 음악시수를 1학년 주당 2시간, 2학년 주당 1시간, 3학년 주당 1시간으로 되어있는 2-1-1 제도 대신, 1학년 주당 2시간, 2학년 주당 2시간의 2-2 제도로, 연구자는 물론 많은 교사들이 제안한다. 현재 2학년과 3학년의 주당 1시간짜리 수업은 많은 교사들이 운영이 쉽지 않는데 동의하고 있다. 공휴일이나 행사로 몇 주 빠지기라도 한다면 학습의 지속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반과의 진도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학교 3학년의 음악수업 공백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으나 2학년 때라도 알차게 운영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교과목 20%안에서 수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주되 학생들의 학습 경감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원래의 의도대로 음악 미술 체육교과, 특기 적성, 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돕고 학습 부담이 없는 교과만을 늘릴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학교의 수업 조정 자율권은 거의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만 늘리는데 중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은 학습시간 투입에 대비하여 학업성취결과를 국제 비교한 결과 세계최저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홍후조·김대석, 2008). 주지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학습시간 대비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과정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교사 수급을 위해 교사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교과과정이 변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때마다 교사들의 교과 이기주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교사들의 안정적인 직위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인 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줄어드는 교과 교사들의 재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다른 과목으로 교육을 받는 교사들에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식년을 준다든지 대학원 등록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근무평점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년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a).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b).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김광하 (2010). 2009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연구보고서 RRC 2010-4-2.
- 김영석 (2010). 2009 교육과정의 맥락적 의의와 실현의 조건: 사회과의 시
각에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73-89.
- 김재춘, 최필순(2012).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 정책 실패가 주
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0(3), 123-140.
- 김진숙, 이미숙 (2012). '이수'를 중심으로 한 교과 집중이수제 분석과 발
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30(1), 125-149.
- 김태훈 (2010). 도덕과와 사회과의 통합적 운영이 어려운 까닭. 한국초등
도덕교육학회지, 33, 33-60.
- 민경훈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
육연구, 37, 1-33.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원미사.
- 박정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연

- 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이경아 (2010). 집중이수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미술교과 운영방안. 미술교육논총, 24(3), 127-158.
- 심상보 (2010).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관점으로 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예술교육. 미술교육논총, 24(2), 67-92.
- 이근호 외 (2010). 집중이수로 인한 전출입 학생의 교육과정 미·부분·중복 이수문제 해결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O 2010-4.
- 이사야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중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춘식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 교육과정의 개발발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4), 161-181.
- 전세경 (2010).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실과] 교과군 구성에 따른 실과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쟁점 및 과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4), 19-43.
- 정미경 (2011). “교과 집중이수 정책의 발전방향 및 지원방안 탐색”. 중학교 교과집중이수모형연구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ORM 2011-52.
- 조난심 외(2010). 2009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시안개발연구 연구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RC2010-1.
- 조석환, 이연주 (2010).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덕윤리과교육, 30, 261-288.
- 조재순, 김상미, 강소정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학년도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 실태와 가정과 교사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4), 67-85.
- 채로이아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음악교육연구, 39, 53-76.
- 최유현 외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기술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

- 교사의 역량 개발 요구도.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1), 1-2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실과,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서울: 저자.
- 홍후조·김대석(2008). “학교시간운영의 효율화와 이수과목수의 정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6(4), 73-101
- 홍후조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집중이수의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40, 53-79.
- Flick, U.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역. 서울 : 도서출판 한울.
- Glaser, B. G. and A. I.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ABSTRACT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about Focused Learning Policy of Music

Hyun, kyungs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focused learning policy of music and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for it.

The teachers' perception was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172 junior highschool and highschool teachers and 1522 students who experienced this policy participated in the study. 27 teachers were interview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First, most teachers are against this policy, and think that it has more disadvantages than advantages. Second, they think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s with this policy are the problem of teacher supply and transferred students. Third, they think that this policy enabled them to try various musical activities, and in this respect has some merits. Fourth, students were doubtful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key words : focused learning policy, 2009-revised curriculum, 2012-revised curriculum,
teachers' perception

투고일: 2013년 5월 31일, 심사(수정): 6월 15일(7월 4일), 게재확정일: 8월 11일